



변리사스쿨

적중도 1등



변리사스쿨

“2025 변리사 2차, 적중률 90% – 이미 본 문제였습니다.”

특허법 x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완전 분석

최신판례, 사례집, 실전GS 자료와의 1:1 대응 수록

전 문항 사례 해설 & 적중도 분석 포함

[제 62 회 변리사 2 차시험 적중자료 바로가기]

변리사스쿨





“2025 변리사 2차, 기출을 예측한 이유 있는 적중”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출의 논점을 사전 제시했습니다.”

총평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2차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판례 기반 출제와 전형 사례 반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조현중 특허법과 최영덕 탁마민사소송법은 그러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기출문제 전반에 걸쳐 **논점, 판례, 사례의 구조적 적중**을 이루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 최신판례 기반으로 출제된 문제 1~2는 JHJ 최신판례 및 Top10 자료와 일치하며, 실제 수업에서 반복 소개된 ****제약분야 실사례(2023다 280358, 2025다202970)****로 구성되었습니다.
- 문제 3~4 또한 사례집 핸드북(54-1번, 005-1번, 79번) 및 심사 단계 조치 공식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강생들은 **문제 구성 자체가 익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사소송법 또한,

- 기출 전 문제 모두 사례집, GS문제와 구조적 유사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 특히 [문제 3: 채권자취소소송관련 문항]은 최종정리강의 자료 내(2023마7122)에 반복 등장했던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로, **직접적 기출 매칭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이번 시험의 기출 문제 대부분은 단순히 유사한 논점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직접 사용된 사례나 판례가 시험에 출제**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식 적중이 아닌, **학습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적중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판례와 사례를 꿰뚫는 구조 학습의 결과입니다.”



전체 문제 요약표

과목	문제번호	문제유형 및 분류	적중자료 출처	적중 유형
특허법	문제 1	제약분야 최신판례 문제	설문 1: JHJ 최신판례 (2024.10.25, 대법원 2023다280358) 설문 2: 상동 설문 3: JHJ 최신판례 (2024.05.15, 대법원 2025다202970) 설문 4: 상동	✅ 직적중
	문제 2	제약분야 최신판례 문제	설문 1: JHJ 최신판례 (2024.07.25, 대법원 2021후11070) 설문 2: 실전GS 8회차 문제 1 대법원 2017다245798(심판원 및 특허법원 담당 대리인 조현중 사건)	✅ 직적중
	문제 3	창작문제	설문 1: 소목차 1) 판례노트 01-3번, 200후1004 소목차 2) 사례집 핸드북 40번 설문 2: 사례집 핸드북 41번 설문 3: 사례집 핸드북 54-1번	⚠ 유사적중
	문제 4	창작문제	설문 1: 사례집 핸드북 005-1번 설문 2: 사례집 핸드북 79번	⚠ 유사적중
민사소송법	문제 1		설문 1: 탁마민사소송법 기초GS 3회 설문 2: 탁마민사소송법 실전GS 3회, 탁마매점 설문 3: 사례집 및 GS에 빈출 등	✅ 직적중



과목	문제번호	문제유형 및 분류	적중자료 출처	적중 유형
	문제 2		설문 1: 탁마민사소송법 기초GS 3회, 탁마 매점 등 설문 2: 탁마민사소송법 기초GS 6회 등	☑ 직적중
	문제 3		설문 1: 탁마민사소송법 기초GS 6회 등 설문 2: 사례집 및 GS에 빈출 등 설문 3: 최신판례	⚠ 유사적중
	문제 4		설문 1: 탁마민사소송법 실전GS B형 8회 등 설문 2: 사례집 및 GS에 빈출 등	⚠ 유사적중

본 자료는 시험 전 제공된 사례집, 핸드북, GS, 최신판례 자료에서 모두 발췌되었으며
단순 유사 논점이 아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정확히 제시한 결과입니다



특허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1]

- 설문 1 : 특허원부 등록 여부에 있어서 전용실시권과 차이
- 설문 2 : 손해배상청구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용실시권과 동일

[적중자료 해당 내용 – JHJ 최신판례 발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기술료 등, 독점적 통상실시권(사용권)

ㄱ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인 □□블, □□뱅크, □□스텝(이하 통틀어 '□□ 블록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322 특허권', '449 특허권'이라 한다], 디자인권[(등록번호 3 생략), 이하 '449 디자인권'이라 한다], 상표권[(등록번호 4 생략), 이하 '468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3. 4.경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국내에서 □□ 블록 제품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322 특허권, 449 특허권, 449 디자인권 등(이하 통틀어 '□□ 블록 제품 관련기술 등'이라 한다)

- 설문 3 : 직접침해 X
- 설문 4 : 간접침해 X

[적중자료 해당 내용 – JHJ 최신판례 발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범위 특정 등

1. 직접침해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특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 전략 포인트 요약

- 이 문제는 단순히 판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 구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 적중자료에서는 **논점 분석 + 문언 정리 + 구조도식화**까지 제공하여 고득점에 필요한 논리 흐름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2]

- 설문 1 : 거절결정

[적중자료 해당 내용 – JHJ 최신판례 발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거절결정(특), 존속기간연장 대상

[존속기간연장 대상]

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특허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 설문 2 : 효력 O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실전GS 8회 발췌]

조현중 특허법

patentschool.co.kr / JHJ-GROUP.com

1차 특허법 면접자 배출

2차 특허법 고득점합격자 배출

8회

[문제 - 1] (30점)

甲은 과민성 방광 증상 및 탈모 증상을 치료하는 의약적 용도를 갖는 물질 X, Y 에 관한 물질특허의 특허권자이다(X 와 Y 는 서로 다른 치료제이다). 甲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물질 X 의 염 화합물인 XA 를 포함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의 허가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특허청에서 위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았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TV 등의 공업품과 달리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2) 정당권원 없는 乙이 甲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동안 XB 염 화합물을 포함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의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 중에 있다. 乙의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가 甲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甲과 乙의 의약품은 치료효과가 동일하다고 본다.) (15점)



전략 포인트 요약

- 2목차 구성이 정답 (5점당 1목차 기준)
- 이상한 학설 기술 시 점수 없음걸로 예상됨
- 인정되는 학설: 제품설, 주성분설, 유효성분설까지
- ✓ 실전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를 강의 및 자료에서 사전 제시
- ✓ 시험 당일 문제 구조 및 목차 모두 그대로 재현

특허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3]

- 설문 1

소설문 1) 절차총칙

[적중자료 해당 내용 – 판례노트핸드북 01-3 발췌]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 2001후104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들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소설문 2) 심사단계 조치 공식

(거통 후, 거결 후, 특결 후, 거불심 기각심결 후)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핸드북 40번 발췌]

2.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하여

- 설문 (3)에 대하여

가. 차이점에 대하여

판단주체에 있어서 재심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결정을 한 기존의 심사관에 반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새로운 심판부다.

명세서등 보정 여부에 있어서 재심사 청구는 보정이 필수임에 반해(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보정 없이 진행한다.

나. 재심사 청구의 장점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심사를 진행한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비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만약 기각심결이 나오면 분리출원 또는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없지만, 재심사 청구에서



- 설문 2 : 주지부합 사례 기본목차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핸드북 41번 발췌]

041

거절이유통지

아래의 각 경우에 있어서 판결 또는 심결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甲은 2015. 2. 4. 출원일이 2014. 8. 6. 인 이 사건 선출원발명 'A 및 B를 포함하는 열성형기구'를 기초로 국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 'a1 및 B를 포함하는 열성형기구'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

- 설문 3 : 법적지위, 권리행사 가부, 전형적인 사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핸드북 54-1번 발췌]

IV. 설문 (3)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실시권자의 의뢰에 따라 전용품을 제작하여 납품했을 때 이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 전략 포인트 요약

문제 3번은 수험생이 헛갈리기 쉬운 절차 흐름과 법적 지위 판별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JHJ 강의와 적중자료에서는 이미 해당 문제를 정형화된 목차 구조로 정리하였으며, (1)~(3) 각각 목차 공식으로 명확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업 및 자료를 충실히 숙지한 수험생은 구조화된 답안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4]

- 설문 1 : 법적지위, 정당권리자 조치의 전형적인 사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핸드북 005-1번 발췌]

005-1

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甲은 2015. 8. 11. 丁에게 '전기 자동차 발전기 세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乙은 2015. 8. 25. 甲에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분배장치 구성품' X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甲은 丙에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충정장치 구성품' Y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를 보조하였다. 丙은 甲과 개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충정장치 구성품' Y를 발명하였다.

- 설문 2 : 신규성 위반 특허취소신청(누구든지 가능), 특허무효심판 청구(이해관계인에 한해 가능하나 실시권자도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가능, 실시권자 무효심판 이해관계)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핸드북 79번 발췌]

079

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乙에게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 내용적으로는 생산·사용·양도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2010. 12. 31. 허락하여 주고, 乙은 甲에게 특허사용료로 2011. 1. 1. 부터 2015. 12. 30. 까지 매출액의 3%를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乙이 甲으로부터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았지만,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

📌 전략 포인트 요약

문제 4는 정당권리자의 법적지위와 무효심판의 청구요건 등을 다룬 심판 복합문제로 수험생이 행정적 구제 흐름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정형화된 절차 구조에 따른 목차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에서 반복 제시된 "목차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의 흐름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1]

- 설문 1 : 상환이행판결의 적법성 여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기초GS 3회 발췌]

I. 설문 (1)에 대하여--기초GS 3회 동일 문제-

【문제-2】(20점)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Z에게 임대하였고 Z은 X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X 토지를 경유·사용하여 왔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甲은 Z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요청을 거절하고 Z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Z은 변호사 丁을 상소의 특별수권을 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대응하게 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소송과정에서 Z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건물매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Z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과 동시에 甲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였다. 판결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 설문 2 : 소송물의 동일성, 추가적인수 가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실전GS B형 3회, 탁마매점 발췌]

【문제-1】(20점)

甲・乙・丙은 건물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 1동을 건축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 후 甲과 乙, 丙 사이에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의 의견 다름이 있었고, 이에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각 사안은 각각 별개임)

(3) 제1심 변론종결전에 乙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丁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전해두었다. 丁도 당사자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소송상 방법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15.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경우 인수승계가 가능한가?③

- 설문 3 : 건물 매수청구권의 실권효에 관한 시적범위, 변론종결사유 인정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사례집 및 GS에 빈출하여 포함하지않음]

📌 전략 포인트 요약

설문 1 - 상환이행판결의 적법성

- 출제 포인트는 청구 범위를 넘는 판결의 가능성 판단.
-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외 요소(예: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한 판결은 부적법하다는 판례 입장을 반영.
- 지적의무와는 별개 쟁점으로 명확히 구분 필요.
- 탁마 강의에서는 판례 흐름 중심의 판단 구조를 사전에 반복 훈련하여,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유도.

설문 2 - 추가적 인수의 가부

-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는 지분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 매우 제한적 범위임.
- 본 사안은 소송물(건물 철거 vs 소유권 이전 등기)이 명백히 상이하여 예외 적용 불가.
- '소송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가적 인수 요건의 판례한정성' 인식이 중요
- 탁마 민소는 사례형 대비용 도식화 정리를 통해 개념 적용을 빠르게 유도.

설문 3 - 건물 매수청구권의 실권 여부

- 건물 매수청구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변론종결 후 사유로도 인정 가능하다는 판례 적용 문제
- 기판력의 기준시 판단 논리, 변론종결 시 이후 사유에 대한 법리 정리가 요구됨
- 탁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 응용형 문제'에 익숙해지는 사고방식 훈련이 중심



민사소송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2]

- 설문 1 : 소송절차 중단 및 승계

[적중자료 해당 내용 – 기초GS 3회, 탁마매점 발췌]

(2) 특별수권을 가진 丁이 제1심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乙이 상속인으로 A, B, C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丁에게 송달되었다. 丁은 A만을 항소장에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B가 상속인임을 이유로 소송수계하였다. A, B, C의 소송절차의 중단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26. 제1심 계속중 사망한 원고의 공동상속인 중에 A만이 수계절차를 밟았을 뿐이어서 A만을 당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한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당인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인을 A만을 기재하여 항소제기한 경우 이를 안 다른 상속인들이 항소심에 수계신청할 수 있는가? (10)

- 설문 2 :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적중자료 해당 내용 – 탁마사례연습, 기초GS 5회 등]

甲은 강원도 춘천시에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위 소송에서 甲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乙이 항소심에서 X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하자 甲은 이를 믿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 뒤 乙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甲은 X 토지를 위 소에 관해 알지 못하는 丙에게 매도하였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바로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에서 乙은 丙의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乙의 점유가 권원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 전략 포인트 요약

탁마 민사소송법은 '절차적 판단구조'를 체계화하여 수험생이 혼동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

● 설문 1

- **핵심 쟁점:**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구조
- 대리인 없이 사망 시, **소송은 당연 중단**, 상속인들 간 **공유관계 성립**
- 각 상속인은 **독립된 수계 주체**로 인정되며, **공동수계가 아닌 개별수계** 가능
- 수험생이 자주 혼동하는 '**수계 요건**'과 '**공동소송 구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필요**
- 탁마 강의는 이를 판례사례 중심의 수계 판단 반복 정리 → 고득점 연결

● 설문 2 핵심 쟁점: 소의 취하 후 동일 소 제기의 제한 요건 판단

- 항소심에서의 소 변경이 **신소 제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재소금지 요건(당사자 동일 / 소송물 동일 / 권리보호이익 유무) 검토 필수
- **채권 양도**는 소송물 승계 사안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탁마 민소는 **요건별로 구조화된 판단기준**으로 **유형별 분류 연습**



민사소송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3]

- 설문 1 : 파기환송의 기속력, 제척기간과 채권자취소소송 혹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적중자료 해당 내용 – 기초GS 6회 발췌]

【문제-2】(20점)

乙은 甲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하였다. 증여계약에 따라 甲이 인도청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자 甲은 증여계약을 이유로 자동차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소송에서 乙은 甲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옹소하였고, 甲은 乙과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乙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승소판결하였다. (다음 사안은 각각 별개임)

(1) 乙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계속 패소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乙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된 항소심에서 다시 乙의 해제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甲이 재상고하자 대법원 소부로 해당되었으나 소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甲이 재상고판결을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1) 수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8. 28. 원고의 청구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루는 위지의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이송하였다. 수이송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2019. 7. 9. 접수되었고, 원고는 2019. 7. 18. 계약해제(선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심 행정법원은 피고가 202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자 피고 乙이 항소하

- 설문 2 :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문제, 중복제소금지, 소취하 가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실전GS B형 7회 발췌]

【문제-1】(30점)

채무자 乙의 채권자인 丁이 丙(수익자)을 상대로 채무자 乙이 담보물인 도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丙에게 사해행위취소로서 회복되어야 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9,500만 원을 산정한 다음 채권액보다 적은 9,5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대계약을 취소하고, 丁에게 가액배상으로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丙은 선행판결에 대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행판결을 안 乙에 대한 다른 대역금 채권자 甲도 역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사안은 각각 별개임)

- 설문 3 : 최신판례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실전GS B형 7회 발췌]

【문제-1】(30점)

(3) 丙은 제1심소송 변론종결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 B, C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丙의 소송은 상소의 특별수권을 가진 변 호사 戊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낮은 수입료로 적극적 소송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상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상소기간 도과 전에 A만이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소송지식이 없어 항소장의 기재가 적식에 맞지 않다. 항소법원이 소송대리인 戊에게 항소장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변호사 戊는 이를 무시하고 보정명령기간 14일을 도과하여 법원은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A, B, C의 소송계속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 전략 포인트 요약

기속력, 소취하, 특별수권 대리인 등 절차법과 판례이론이 혼합된 고난도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기초 개념의 명확한 적용'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탁마 민사소송법은 기본 이론과 판례 흐름을 체계화하여, 이와 같은 긴 지문의 최신 판례 포함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

● 설문 1 – 원심법원의 판단 적법성

- 핵심 쟁점: 기속력의 작용 범위 / 형성권 행사와 제척기간
- 상고심이 사해행위로 판단한 이상, 원심은 그 판단에 구속 → 기속력 위반 여부 검토
- 새로운 증거·사실 인정 없는 경우, 원심의 반대 판단은 위법
- 예비적 청구는 형성권 행사 요건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 설문 2 – 소취하의 법적 효과

- 핵심 쟁점: 중복제기된 소송에서 소취하의 허용 여부 및 피고 동의 요건
- 부적법한 소라도 소취하는 가능하다는 원칙을 적용



- 소취하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피고가 본안 판단을 받을 이익이 없을 경우, 동의 없이도 소취하 유효
- 기본 원칙과 예외적 상황의 구별, 본안 이익 유무 판단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관건

● 설문 3 – 특별수권 소송대리인의 상고장 제출 문제

- 핵심 쟁점: 특별수권 없는 당사자의 직접 상고가 유효한지 여부 (최신 판례)
- 원칙적으로는 소송절차는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
-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직접 상고 제출을 유효로 본 최근 판례 존재
- 이 설문은 기본 원칙의 예외 인정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는지가 핵심



민사소송법 적중자료 상세분석

[문 4]

- 설문 1, 2 : 채권양도의 승계참가 문제, 보조참가인의 항소가능성

[적중자료 해당 내용 – 실전GS B형 8회 발췌]

변리사스쿨

2025년/실전B 제8회

절차당해(切達當害)

【 문제-2 】 (20점)

재건축조합이 X 아파트 재건축을 Z 건설사에게 맡기면서 사업종료시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상호양해 하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재건축조합에서 부탁한 A 앞으로 마쳤다. 그 후 Z은 A 명의의 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 및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각각 등기말소 및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년에 승소·확정되었으며, 2018년에 이 판결에 따라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甲은 2011년에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2016년에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다음,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다. 그 후 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甲은 주위적 청구로서 Z이 A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예비적 청구로 Z이 승계인이 아니더라도 A로부터 보증금을 전달받았으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동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였다. (다음 사안은 각각 별개임)

(1)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것을 두고 임차주택의 '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Z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려고 한다. 승계인 여부 및 청구의 인용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과 항소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甲의 승계인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A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Z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서 甲의 Z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판결하고, 예비적 청구 역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하였다. 원고 甲이 계속하여 상고하였을 경우 상고법원의 조치를 설명하시오. (10점)

전략포인트 요약

채권 양도에 따른 권리보호이익과 단순보조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는 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빈출되는 주제.

이번 문항은 “소의 제기 요건”과 “참가인의 절차상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본기 점검형 문제.

탁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적 개념을 사례 중심으로 반복 훈련하여, ‘지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인 문제에 강점을 갖도록 설계.

● 설문 1- 채권 양도와 권리보호이익

- 핵심 쟁점: 채권 양수인의 별소 제기 가능 여부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
- 채권 양도는 소송물의 승계에 해당 → 기존 판결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 미침
- 양수인은 이미 집행 권원을 가지므로, 별도로 소 제기할 권리보호이익 없음
- 따라서 별소는 부적법 → 각하 판단이 타당
- 탁마 강의는 소송요건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 정리표 제공으로 실제 사례에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 강화

● 설문 2- 단순보조참가인의 항소 가능성

- 핵심 쟁점: 단순보조참가인의 종속성 원칙과 독자 항소 가부
- 단순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에 전적으로 종속되므로, 피참가인이 항소할 수 없는 경우(예: 기간 도과 등)에는 보조참가인도 항소 불가

“적중을 넘어, 합격의 구조로”

변리사스쿨의 강의는 단지 ‘기출을 풀어보는 수업’이 아닙니다.

쟁점을 구조화하고, 목차를 정형화하며, 실전을 시스템화합니다.

지금부터의 1년이, 여러분의 법적 사고력과 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변리사스쿨의 2 차 집중 커리큘럼 : 민소/특허 실전 GS 중심 구성

2 차 기득종합반	세부구성			
	이론과정		답안작성과정	
민사소송법 (최영덕)	탁마민사소송법 심화강의	탁마민사소송법 기출사례	기득을 위한 기초 GS	기득을 위한 실전 GS
2 차 특허법 (조현중)	심화강의	판례심화강의	기출 GS	기득을 위한 진도별 실전 GS

 "2 차 시험, 더 이상 스스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기득생"에게 추천합니다

JHJ + 탁마 커리큘럼 로드맵 : (2025.09 ~ 2026.02)

시기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전략적 특징
9~10월	심화 정리반	2차 심화이론, 쟁점별 판례 구조화	방향성 + 본질 훈련



시기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전략적 특징
10~11월	사례 정리	사례형 목차 자동화 훈련	정형화된 답안 양식화
12~1월	기출+기초GS	주요 판례 포함 고난도 문제 풀이	응용력 + 실전 반복
1~2월	실전GS	실제 시험에 가장 가까운 운영	실전 대응 완성 단계

✳️ 쟁점별 목차 – 기출대응 – GS첨삭의 **3단계 반복 구조**를 통해 실력 체화

변리사스쿨은

시험일까지의 학습을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공부의 몰입도와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수험생활을 끝내고, 계획된 학습의 흐름 속에서
확신 있게 합격을 준비하세요.